

제 4차 동북아연구회 결과 보고

I. 개요

1. 주제: 동북아에너지/철도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
2. 개최일시 및 시간: 2007-12-14 (10:00-12:00)
3. 개최장소 KIEP 9층 회의실
4. 발표형태: 라운드테이블 패널
5. 발표자 및 참석자:
이재승 고려대 교수
나희승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
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위원
김성철 세종연구소 위원
장형수 한대 교수
이순철 연구위원
안형도 연구위원

II. 주요 논의 내용

1. 토론 내용

☐ 이재승 위원

- 현재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문제제기의 수준임. 2000년 이후 단기간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엄밀한 분석과 검증이 부재하고 당위론적 접근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음.
- 또한 이론적으로도 체계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연구주제도 중첩되어 이루어지고 있음.
- 동북아에너지 협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치적 접근이 요청되며 국가간의 협력의 측면이외에 상호간의경쟁적인 구조가 존재함.

- 역내 정치안보적 갈등은 동북아에너지 협력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.
- 향후 동북아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협력주체를 국가, 민간, 국영기업으로 세분화하여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.
- 또한 협력의제를 유연화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상류부문, 공동구매, 공동비축, 아시아 프리미엄 대처, 대체 에너지 개발 등 하류부문의 이슈가 다양하게 논의 되어야 함.
- 협력의 범위에 있어서 동북아 외에 동아시아, 범아시아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문을 협력을 확대하여야 함.
- 협력방식에 있어서 양자와 다자를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
□ 나희승 위원

- 남북철도는 북한의 경제회생과 남북경제통합, 동북아경제의 연관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하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.
- 남북철도는 한반도의 장기비전과 수요에 부합하면서, 가장 개연성이 높은 관련 산업특구를 상정하여,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출되어야 함
- 그동안 남북 및 대륙철도연계사업이 경의선개통의 불확실성으로 TKR~TSR 연결 사업에 집중되었지만 경의선 화물열차개통 및 개보수 사업을 계기로 TKR~TCR(TMR) 연결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동서의 균형적인 한반도인프라구축이 가능
- 국제열차운행을 위하여 국제운송협정을 관장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가입도 다시 추진해야 함
- 동북아역내 국가간 인적·물적 수송을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의

가입을 추진하고, 동 기구 가입시 국제화물운송협정(SMGS)과 국제승객운송협정(SMPS)을 동시 가입할 필요가 있음

- 이번 남북철도의 시험운행과 화물열차 개통이 남북의 경험뿐만 아니라 동북아경제권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도록, 남북간 양자협력을 3자 협력, 다자협력으로 그 틀을 확대해 가야하며, 역내국간 다자협약체 구성방안의 구체적인 모델 제시 필요

2. 논의 내용

□ 안형도 위원

- 기존의 동북아 협력이라는 틀에서 다자 전략으로 논의의 틀을 바꿀 필요. 협력은 한계가 있음.
-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는 용어를 만들 필요가 있음.

□ 김성철 위원

- 에너지 협력의 가동용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.

□ 이재승 위원

- 남북철도, TCR, TSR연결의 경우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. 사업성이나 실현 가능성의 고려 없이 너무 당위성위주로 사업의 필요성의 논리가 전개. 사업성에 기초한 철도협력방안의 제시가 필요.

□ 이동휘 위원

- 지역협력의 좁은 범주를 탈피하여 regional architecture 차원에서 동북아 협력을 접근할 필요.

